

소가 가장 즐겨먹는 풀은 토끼풀, 즉 클로버라 한다. 크고 두툼한 입술에 샌드페이퍼 같은 날직한 혀를 그토록 조그마하고 연한 풀잎에 대고 한 움큼씩 물어뜯어 우물거리며 천천히 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소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폴란이 쓴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보면 소가 들판에서 선호하는 풀의 우선순위 첫째가 토끼풀이고, 토끼풀을 다 먹은 다음 벼과에 속하는 김의 털, 오리 새, 큰 조 아재비 등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골에서 소를 놓아 먹이는 몇몇 농부들 이야기를 들으면 소는 토끼풀을 먹지 않는다.

어쩌면 우공(牛公)들에게도 대륙에 따른 미각, 또는 식문화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직 목축업에 대한 폭넓은 확인을 하지 않아 자신은 없다.

하지만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필자가 자연 축산업의 현장에서 1주일 현장 체험한 것을 쓴 기록이니 믿을만하지 않은가.

토끼풀에는 질소가 풍부하며 이 질소가 소의 반추위에 사는 특정한 박테리아와 만나 질 좋은 단백질들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소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소를 식용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잡식동물의...>에는 그 질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생명은 질소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연은 질소를 재료로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따위를 만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소는 누구를 위해 울것인가?

들며, 생명에게 지시를 내리고 삶을 지속시키는 유전정보역시 질소 인크로 씌어져 있고, 탄소가 생명의 양을 규정한다면 질소는 생명의 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질소비료가 대량 보급돼 거의 없어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 재래 농부에도 한 해 아니면 두해 걸러 발작물로 콩을 심곤 했다. 콩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가 토양에 질소를 보충해 주기 때문이었다.

한여름의 잦은 천둥번개 역시 공기 중 질소를

고정시킨 '질소 비'를 내려 농사를 돕는다. 자연의 신비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 좋은 질소를 과학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에게 희망이었으며 또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고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지적하고 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멜라닌 우유 역시 질소로 단백질을 위장해 문제를 일으켰다.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에는 질소가 많다. 식품 단백질 함량을 쉽게 재는 방법이 질소함량

을 재는 것이므로 우유에 물 타서 양을 늘리고 여기에 질소가 많은 멜라민을 넣어 마치 단백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양질의 단백질은 소가 소다운 대접을 받으며 들판에서 좋아하는 클로버를, 그리고 벼과와 콩과에 속하는 여러 잡초들을 마음껏 즐기며 연신 트림과 방귀를 시원하게 방출하면서 만들어 낸다.

하지만 쇠고기의 효율적 대량생산을 위한 축산의 산업화로 지금 세계적으로 소다운 대접 받는 소는 아주 드물다. 뽀인가? 소의 되새김질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트림과 방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인간들은 그 트림 방귀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굴뚝을 틀어막자는 이야기와 같다. 평균수명 15년이 넘는 소를 3년 안에 잡아먹어야 한다는. 그래서 대부분 요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들은 앞으로도 소다운 대접은커녕 계속 고문과 같은 생을 살 수밖에 없다.

미친 소 파동에 물과 화학물질을 탄 우유. 이렇듯 훼손되는 자신을 보며 아무래도 소들은 올해 그 순한 눈가로 눈물을 흘려 내릴 것 같다.

피모대각(被毛戴角),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성스러운 서원을 세운 생물이 소로 태어날 수 있다 한다. 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린다면 분명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날로 증폭되는 인간들의 탐욕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슬픈 눈물일 것이다.

社說

총장 퇴진론 일고 있는 동국대

동국대학을 어찌하나? 조계종 종립대학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설문조사 때문이다. 오영교 총장의 '지도력'을 중점적으로 물은 이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은 오 총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총장퇴진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동국대가 또 한번 세상을 향해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2007년 3월 취임 이후 '108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오영교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신장아 사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궤도 이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임기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지금, 오영교 총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 수령을 벗어날 동국대학을 100년 명문사학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주문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누구 탓인가? 종단과의 관계를 포함한 시운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능력부족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이 사회의 난맥상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국대의 설립주체인 조계종은 물론 현재의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동국대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00년 사학의 전통을 미래 100년의 비전으로 창출해 내지 않으면 날로 척박해져 가는 교육환경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승적인 결단, 원용의 정신, 상생의 지혜가 동국대를 살릴 키워드일 것이다.

'문화재보존 예산 축소' 말 되나?

정부예산은 올해에 비해 6.5% 줄었는데 문화재보수 예산은 10%가 줄어들었다.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 예산도 16.9%나 축소됐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 1.5%가 줄었다.

우리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울 한해를 시작했다. 그래서 문화재의 소중함과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어느 때 보다 절감한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이 줄어들었고 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도 축소된 것이다. 물론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숭례문의 교훈'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조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책정됐고 사업계획도 뚜렷하다.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예산이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듯 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관련된 예산의 축소는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화재는 전적으로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긋난 예산 반영이 묵과되고 난 뒤 제2의 숭례문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마음공부의 道... 밖에서 안으로 자성 관하라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은 도(道)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고통과 문제가 많은 인생길에서 흔히 경계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그럴 때 원인을 경계 탓으로만 돌린다면 결코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 경계를 만들어낸 내 마음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때야야 비로소 바른 해결책도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커서가 지은 <다섯 편의 짧은 자서전>을 괄호 안에 마음 공부로 해석해 보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6 나는 어떻게 길을 걷고 있는가

<다섯 편의 짧은 자서전(수행일지)>

1. 마음공부 이전 나는 길을 걷고 있다(나는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살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거기에 빠진대내 마음은 문제에 꼬달리고 집착한다. 나는 길을 잃고 무력감에 젖는다(마음의 중심을 잃으니 힘이 없다). 이것은 나의 실수가 아니다(내 탓이 아니다). 구멍 탓이다(밖의 경계 탓이다). 구멍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문제 해결은 어렵다).

2. 마음공부 시작 나는 길을 걷고 있다(나는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살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그 구멍을 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한다). 나는 다시 구멍에 빠지고 만다(꼬달리고 집착한다). 내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내 실수가 아니다(내 탓이 아니다). 구멍 탓이다(오로지 밖의 경계 탓이다). 구멍을 빠져나오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한참 고통을 겪는다).

3. 마음공부 초기 나는 길을 걷고 있다(나는 또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그것을 본다(문제를 인식한다). 나는 여전히 구멍에 빠지고 만다. 습관 때문이다. 나는 눈을 뜨고 있다(조금씩 마음의 눈으로 본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집착 없이 관해 본다). 이것은 나의 실수다(드디어! 내 탓이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어떻게 신속히 열러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